



제주SK 홈 마지막 경기 “반드시 승리” ‘마감 35초 전 이적 완료’ 황희찬 살게행

5일 K리그1 27R 울산전
상위권 진입 경쟁 ‘치열’
9일 28R부터 원정 이어져

지난해보다 105일 빠르게 리그 10
승을 달성한 제주SK FC가 마지막
홈경기도 연승을 선언했다.

제주SK는 오는 5일 오후 7시 제
주월드컵경기장에서 울산HD와
‘하나은행 K리그1 2026’ 27라운드
홈 경기를 갖는다.

제주에서 다음달까지 전국장애
인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가 잇
따라 열리면서 28라운드부터 원정
경기에 나서는 제주SK는 파이널라

운드 이전 33라운드까지 홈경기
가 없다.

제주SK는 10승8무8패, 승점 38
로 리그 4위를 달리고 있다. 세루지
우 코스타 체제 이후 지난해보다
105일, 12경기 빠르게 10승을 달성
한 제주SK는 여전히 파이널 라운
드 상위 스플릿 진입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5위 강원, 6위 포항과의 승점 차
가 3점 차에 불과하고 7·8위와도 4
점 차여서 연패할 경우 순위는 뒤
바뀔다. 그만큼 연승이 필요한 시
기이다.

하지만 올 시즌 제주SK의 울산
전 성적은 부진하다. 1차전은 0-2,

2차전은 1-2로 잇따라 패했다.

제주SK는 최근 팀 분위기 자체
가 상승세를 타고 있고 네게바와
아이아스, 지난 라운드에서 데뷔골
을 신고한 치나리가 울산전에서도
경기를 주도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대 팀들의 집중 견제를 받았던
네게바와 아이아스는 나란히 시즌
3호골을 기록하면서 팀에 녹아든
상태다.

한편 제주SK는 울산과의 27라운
드 이후 오는 9일 28라운드 광주전
부터 33라운드 인천전까지 원정경
기에 나선다.

위영석기자 ysw1968@ihalla.com

올버햄튼서 한 시즌 임대
이적 옵션 포함… 등번호 7번

이적 마감 시한 35초 전, 축구 국가
대표 공격수 황희찬(30)의 살게04
(독일)행이 확정된 시간이었다.

황희찬이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올버햄프턴 원더러스에서 독
일 분데스리가 살게로 임대 이적하
는 과정이 아주 극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 시즌 승격 팀인 살게는 2일(한
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황희찬을
2027년 6월 30일까지 한 시즌 동안
올버햄프턴으로부터 임대한다고 알
렸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번 시즌 종
료 후 살게가 올버햄프턴에 이적료
300만유로(약 47억원)를 내면 황희
찬을 완전히 이적시킬 수 있는 옵션
이 이번 임대 계약에 포함됐다.

그런데 구단이 영입 소식에 곁들
인 사진에 황희찬은 살게가 아닌 국
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

3일 WAZ, 빌트 등 독일 매체에
따르면 살게의 황희찬 영입은 무산
될 뻔했다가 가까스로 성사됐다.

살게의 스포츠 디렉터 프랑크 바
우만은 “분데스리가 시스템에 모든
서류가 업로드됐다는 확인을 받았을
때, 이적시장 마감(현지시간 2일 오후
8시)까지 35초밖에 남지 않은 상
황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이를 두고 빌트는 ‘시계 초침이
반 바퀴만 더 돌아갔더라면, 살게는
추가 공격수 없이 1부 잔류를 위한



등번호 7번이 새겨진 살게 유니폼을 든 황희찬.

살게 구단 SNS

싸움을 시작해야 했을 것’이라고 전
했다.

살게는 잉글랜드 챔피언십으로 강
등된 올버햄프턴의 황희찬을 오래전
부터 영입 후보로 두고 지켜봐 왔다.

하지만 올버햄프턴이 황희찬을 임
대가 아닌 완전 이적으로만 보내려
했기 때문에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

분데스리가 이적 시간 마감일인
현지시간 2일 정오까지만 해도 황희
찬의 살게행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그런데 이후 갑작스럽게 황희찬
을 임대로 영입할 길이 열렸다.

올버햄프턴이 황희찬을 다른 팀
으로 완전 이적시키지 못했고, 황희
찬이 가족과 거취에 대해 조율하는
동안 살게와 올버햄프턴 구단은 협
상을 이어갔다.

그러고는 이날 오후 기본적인 합
의에 도달했다.

이후에도 전자 서명 절차 등의 난
관까지 뚫고 나서 마침내 분데스리
가 사무국의 승인을 받은 시간이 오후
7시 59분 25초였다.

살게의 이적 업무를 담당했던 팀원
들은 그제야 맥주 한 잔씩 들이킬
수 있었다.

황희찬의 건강 검진은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서 다음 날 진행됐다.

올버햄프턴에서 등번호 11번을
달았던 황희찬은 살게에서는 7번을
배정받았다.

살게는 3일 등번호 7이 새겨진 유
니폼을 든 황희찬의 ‘오피셜’ 입단
사진도 구단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했다.

연합뉴스



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는 제주SK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국 장애인펜싱, 월드컵 단체전 사상 첫 우승

대한장애인펜싱협회는 한국 장애
인펜싱이 월드컵 단체전에서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김선미(37·광주장애인펜싱협
회)·권효경(25·홍성군청)·조은혜
(41·부루벨코리아)·조예진(23·SK
하이이엔지)으로 구성된 한국 여자

대표팀은 2일 태국 파타야 이스턴
내셔널 스포츠 트레이닝 센터에서
열린 2026 파타야 장애인펜싱 월드
컵 여자 에페 단체전 결승에서 중
국을 26-21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같은 날 열린 여자 플뢰레 단체
전에서도 한국은 브라질을 꺾고 동
메달을 거머쥐었다.

이번 대회에선 개인전에서도 메
달 행진이 이어졌다.

조은혜가 여자 사브르 스포츠등
급 B에서 은메달, 남자 에페 B 이
진술(33·내소남모터스), 여자 플뢰
레 B 조예진, 여자 에페 A 권효경,
여자 에페 B 조은혜가 동메달을 목
에 걸었다.

대표팀은 오는 10월 열리는 2026
아시안·나고야 장애인아시아경기
대회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연봉 품수’ NBA 클리퍼스 벌금 408억원 중징계

미국프로농구(NBA) LA 클리퍼스
와 간판스타 커와이 레너드가 샐러
리캡(연봉 총액 상한제) 규정을 교
묘하게 우회한 혐의로 리그 사무국
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NBA 사무국은 3일(한국시간)
독립 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
탕으로 샐러리캡 우회 규정을 위반

한 클리퍼스 구단과 레너드 등에게
징계를 내린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클리퍼스 구
단은 레너드가 구단과 거래하는 4
개 기업으로부터 경기 외적인 수입
을 얻을 수 있도록 사적인 후원 계
약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단은 이들 기업에 구단과의 비
즈니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레너
드와의 계약을 유도했으며, 레너드
와 그의 대리인의 사적인 경비까지
대담하는 등 다수의 중대한 규정

위반을 저질렀다.

레너드 역시 당시 비즈니스 매니
저였던 데니스 로버트슨을 통해 구
단에 부당한 지원을 압박하고 비용
대담액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
인됐다.

이에 따라 NBA는 클리퍼스 구
단에 3000만달러(약 408억원)의 벌
금을 부과하고, 2029년부터 2033년
까지 향후 5년 치 1라운드 신인 드
래프트 지명권을 모두 박탈하는 중
징계를 내렸다.

연합뉴스

특별한 가을여행
제주↔일본전세기 2박3일
아소, 구마모토, 마메타마치

10.31(토)-11.2(월)
1,099,000

자유여행 에어텔
선착순 30명 한정! 국제선티켓+코코호텔 구마모토 카미토리
55만원(트윈룸) **65만원(싱글룸)**
항공료(TAX,일본출국세 포함), 호텔(조식 불포함)

제주↔항주(통에어)
매주 목요일 | 10명 이상 출발 | 3박4일

노팁! 노옵션! 노쇼핑!

항산	1,199,000
오진	1,199,000
상해	1,099,000

가을 항산 4인 출발확정
• 10.8(목)~11(월) 1,249,000(한글날연휴) • 11.2(월)~5(목) 1,199,000

(춘추항공)
제주↔태항산

출발 확정
절벽과 협곡이 빛어낸 대자연 여행
10.25(일) 3박4일 | 10.28(수) 4박5일

노팁! 노옵션! 노쇼핑!

(매주) 일요일
3박4일 899,000

(매주) 수요일
4박5일 999,000